

Vol. 20 No. 950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29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재외투표 첫날 보스톤 93명 투표, 젊은 층들이 대부분

"나라가 잘돼야죠" 젊은층들 한국의 정치에 높은 관심
주말 금요일부터 개장하는 한인회관에는 노년층 방문 늘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첫날인 3월 27일 총 93명의 한인들이 뉴튼에 위치한 보스톤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올해 재외선거 첫날에는 오전 8시 박진영 보스톤재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뉴잉글랜드 지역 첫 투표자로 투표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투표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던 올해에는 없었다.

미주 지역의 재외투표는 보스톤들 비롯해 워싱턴DC,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우편 한인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와 같은 일부 지역 투표소는

29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3일간만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에 사전 등록(신고신청)한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 등 재외선거 유권자는 모두 3만3천615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등록 유권자(4만562명)와 비교하면 17% 가량 감소한 수치다. 보스톤에서 등록한 유권자는 1007명(단기체류 889, 영주권자 118명)이다.

투표소를 출근 전인 아침 일찍부터 찾아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오전 9시께 투표를 마친 안재영(43)씨는 "오늘부터 투표가 가능한 것을 알고 투표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재외선거 첫날 투표를) 미리 계획했다. 이미 투표할 당을 정해



27일부터 실시된 재외선거 첫날 뉴튼 보스톤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직장인들을 비롯 특히 학생층이 많았다. 보스톤에서 등록된 유권자중 영주권자는 118명에 불과해 영주권자들의 관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투표를 위해 방문한 학생들

투표했다" 고 밝혔다. 현재 보스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외 부재자인 안재영씨는 "나라가 잘돼야죠" 라며 유권자로서 소중한 표의 행

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전 9시 15분 보스톤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와 남궁연 보스톤 재외 >>3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턴트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오직 매물만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부동산중개인협회 한인 2세 헨리 최 회장과 그의 일문 일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3월 16일 아시아부동산중개인협회(Asian Real Estate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AREAA) 보스톤지회가 올스틴의 허브챔버스 랜드로버 매장에서 연례 갈라를 개최했다.

500여명의 부동산 업계 관련자들이 모인 갈라에는 헨리최 회장을 비롯 일부 한인 부동산업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헨리최 회장은 현재의 임원 이사진 중 유일한 한인이다.

그동안 많은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이 AREAA 고위 임원진을 맡기도 했지만 회장으로 인터뷰를 가진 것은 헨리최 회장이 처음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이다.

-아시아 부동산중개인협회(AREA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조직의 주요 목적과 역할은?

AREAA는 아시아인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이 역동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인들이 모여 전국 단위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 45개 지부에 1만8천명의 회원이 소

속되어 있으며, 이는 계속 성장 중이다.

매년 5월에는 워싱턴 DC에 모여 아시아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 성공한 캠페인 중 하나는 "No Other Campaign"이다. 인구조사에서 아시아인을 '기타'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해 아시아인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추진중인 활동은 부동산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 다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원, 상원 방문에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회장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현재 임기 중 특별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가?

2024년 말까지 보스톤 지부의 회장직을 맡는다. 2025년에는 새 이사회에 조인하는 '전임 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여 회

원 수의 유지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은 무엇인가?

임기 동안 보스톤지부의 회원 수를 30% 이상 증가시켰다. 새로운 네트워킹 행사를 추가했으며, 커머셜 부문을 강화했다. 폭발적인 성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 지부는 한때 6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원 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사회와 임원진을 보면 유일한 한인이다. 중구계가 대다수임에도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한 비결은 무엇인가?

미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조직과 규율 및 임무 목표 지향적 태도를 배웠고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보스톤 지회는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 배경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부동산중개인협회 연례 갈라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는 헨리 최 회장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며 규율 그리고 의무감이 핵심적이라고 믿으며 이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매우 유능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합의와 수수료체계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변화가 부동산 업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나요?

이번 NAR 합의는 부동산 업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7

월 중순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각자 사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MLS(Multiple Listing Service)는 매매 중인 주택, 판매 완료된 주택,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모아 제공하는 부동산 리스팅 데이터베이스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전국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며 실제로는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는 8개의 다른 MLS 서비스가 있다. 이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MLS에서 공개적으로 구매자 중개인 보상을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매자 중개인(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구매자를 대리하기 전에 중개인 수수료를 공개하고 이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이를 실행해 왔을 것이다.

구매자 중개인의 중요성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오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거래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로서 앞으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고객들은 첫 주택구입자, 첫 부동산 투자자, 홈캐축 플립퍼, 새로운 지역 이주자들이며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집을 매도하는 측의 중개인으로서 가능한 한 고객에게 최대한의 금액을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매자 측을 충분히 보호할 중개인이 없다면 구매자가 주택 가격을 과다 지불하거나 오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잡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기존의 매도인이 중개인이 구매자 중개인에 보



16일 갈라에서 한인 회원들과 포즈를 취했다.(사진 왼쪽부터 다이애나김, 헨리최, 권영대씨)

하는 관행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중개인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중개인은 시간당 요금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주택 가격은 특히 보스턴과 같은 시장에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버드, MIT, BC와 같은 고등 교육 접근성과 Nuance, CarGurus, Pluralsight와 같은 혁신적인 AI 회사의 존재감이 더해지면서 국내외 직항이 확대됨에 따라 보스턴 지역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2023년 주택 가격은 6.3% 상승했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8.4%,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서는 약 13% 상승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의 몇몇 도시들은 가격 하락을 경험한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도시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 규칙 변경으로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있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업계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

개인 없이 진행되는 많은 수의 구매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새로운 소송이나 불만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면 보상 모델에서 또 다른 진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중개인의 안내없이 구매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매를 하는데 있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판매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느낀다. 하지만 대표 모델의 변화로 시장에 구매자가 줄어들 수 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렌트를 유지하게 돼 주택구매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바로 구매 시장에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학습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일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재외투표 첫날 보스턴 93명 투표, 젊은 층들이 대부분

▶▶1면에 이어서

선관위원장, 오은희 위원이 투표를 마쳤다.

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도 투표소를 찾았다.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은 “봄방학이라 먼저 투표하고 테니스를 치러 가는 길” 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 첫출발 때부터 선거관리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실무관 김범준 선거관리위원은 “과거보다 어린 학생들의 투표가 늘었다” 며 새내기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열정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첫날 투표에서도 많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보스턴에서 차로 약 2시간 떨어진 그린필드에서 한 한인 유권자는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아 다시 집까지 다녀 온 후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위해 27일 하루 운전대 뒤에서 무려 8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주말 3일간만 개소할 예정인 우번 한인회관 투표소에 들렀다 다시 영사관을 찾은 유권자도 있었다. 우번 한인회관 투표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에는 뉴튼의 보스턴총영사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유권자 사전 신고 및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소를 곧바로 찾은 한인들도 10명이 넘었다. 영주권자의 경우 등록하면 다음 선거 시부터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기 체류 신분인 학생, 직장인 등은 매 선거마다 등록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위해 출발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여권(국외부재자), 또는 여권과 영주권(영주권자)을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 보스턴총영사관에서 투표시 바로 옆 건물인 포포인츠쉐라톤호텔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등록시 주차권을 받으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보스톤 지역 대학 학비 1년 사상 첫 9만달러 돌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웰슬리 칼리지의 2024년-25 학년도 학비가 등록금, 수수료, 기숙사, 식비까지 포함해 92,060달러로 사상 첫 9만달러를 돌파했다. 보스톤대학(BU)의 학비 역시 90,207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 학비의 증가는 두드러진 2개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역내 최소한 10개의 대학은 학비가 80,000달러를 초과했다. 하버드와 노스이스턴은 아직 가을학기 학비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브랜디스 대학의 학비는 89,824달러, 올린 공과대학은 89,669달러, 벤틀리 대학은 84,570달러, 그리고 밥슨 칼리지는 82,126달러다. 매사추세츠 서부의 명문 인문학 대학 중 애머스트 칼리지는 88,210달러, 마운트 홀리오크는 86,702달러, 윌리엄스 칼리지는 85,820달러로, 동부 대학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다.

학비의 상승은 교육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OR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56% 응답자가 대학교육이 비용 대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10년 전 4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18세에서 34까지의 젊은층들은 60%가 대학이 가격대비가 가치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전역으로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92,288달러를,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은



이미 올해 91,200달러를 부과해 9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컬럼비아 대학도 89,587달러로 거의 9만 달러에 달했다. 이들 두 대학은 아직 올 가을 학비를 발표하지 않았다.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등록학생들이 줄어든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웰슬리 대학은 8천4백만달러를 중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재정보조금액으로 책정해 두고 있으며 올린은 51% 재학생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디스는 재정적 필요성이 입증된 학부생들에게 100%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을 학기 학비가 85,960달러인 MIT는 1억 6,700만 달러의 재정 지원 예산을 설정했으며, 학생들의 평균 장학금은 학비의 약 4

분의 3에 해당하는 63,146달러라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25세 이상의 학위가 없는 성인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6천2백만달러 프로그램을 지난해 가을 시작했다. 2월 바이트 행정부는 약 15만 3천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12억달러의 빚을 탕감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학위가 없는 25세 이상의 성인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6,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난 가을 시작했다. 또한, 2월에는 바이트 행정부가 약 153,000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12억 달러의 빚을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hsb@bostonkorea.com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보스톤 지회, 모교 건축기금 3만불 전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보스톤지회는 3만달러의 건축기금을 모아 지난해 보스톤에서 개최된 북미주연합회 총회에서 김은미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향후 150년을 내다보면서 이화 웨스트캠퍼스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톤지회(회장 공정원)는 지난 3월 9일, 벨링턴 소재 세븐 스프링스 클럽 하우스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창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장학금(장학위원 이명숙)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정은택(연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신학), 임지수(이화여대 졸업생, 보스톤 대학교 생명공학박사 과정), 박예원(보스톤 칼리지 사회 복지 석사 과정), 변하운(뉴욕 시각예술학교) 등 네 명의 학생에게 총 4,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톤 지회는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과 그 자녀뿐 아니라 보스톤 지역의 한인 학생들과 타인종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이날 총회 당일, 동창회원들은 점심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그간의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2023 세금보고, 바뀐 점과 주의할 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세정(IRS) 케빈 모어헤드 부 커미셔너 (Kevin Morehead, Deputy Commissioner)는 3월 22일 EMS기자회견에서 2023세금보고시 변경사항과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다이렉트 파일 = IRS는 3월 12일부터 매사추세츠 등 12개주를 대상으로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W-2를 받는 월급 직장인이고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사람은, 세금 전문인이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IRS에 곧바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으면 파일 후 21일 이후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수입이 없는 월급 직장인에게 적합하며 비용은 무료다. 다이렉트 파일은 홈페이지 (<https://directfile.irs.gov/>)에서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 79,000달러 이하이며 온라인 파일(E-file)을 원하는 사람은 IRS와 제휴한 세금 보고 회사의 모임인 '무료 파일 연합' (Free File Alliance)을 통해 무료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 세금 보고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무료 파일 연합 가입 회사는 <https://freefilealliance.org/>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소득이 64,000달러 이하이고 온라인 파일보다 세금전문인을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지원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를 찾아가면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VITA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IRS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은 연장자를 위한 세금상담(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면 질문 가능 = IRS는 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예산배분에 따라 전화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전화통화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IRS는 말한다. 만약 IRS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납세자지원센터(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찾아갈 수 있다. 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https://www.irs.gov/help/contact-your-local-irs-off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빠른 리펀드 위해 온라인 파일 = IRS는 빠른 리펀드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파일(e-file)과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온라인파일은 종이 파일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

다. 리펀드 상황은 IRS 홈페이지 Where's My Refund (<https://www.irs.gov/refun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정보 제공 = IRS는 한인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납세정보를 한글로 제공한다. IRS 한국어 정보는 <https://www.irs.gov/ko/help/information-about-federal-taxes-korea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기방지 위한 전문인 채용 = 최근 리펀드 액수를 최대로 받아주겠다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는 무자격자(ghost preparers)들이 많다. 또한 "IRS에 세금을 내라"는 사기전화 및 텍스트 메시지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IRS는 "세금관련 통지는 오로지 편지로만 한다"며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로 오는 IRS사칭 사기에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타인에게 세금보고를 맡길 경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세금 전문인에게 맡길 것을 권한다. IRS에서 검증된 세금 전문인 명단은 Need someone to prepare your tax return? (<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7, 2024 (SAT) 6PM

**FRANCO AMERICAN CLUB
W Prescott St. Westford, MA 01886**

TICKET: \$8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평화의 땅, 평화의집 월드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fcm.org

국제선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전국연합회 보스톤지회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보스톤서북쪽 웨스트포드 소재 프랑코어메리칸클럽 (Franco American Club)에서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국제선 기

금모금 만찬을 통해, 이 단체는 웰터인 평화의 땅, 평화의 집 건축과 2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만찬은 간단한 개회식, 공연 그리고 댄스 타임 등으로 구성된다. 티켓은 1인당 \$80이며, 티켓 및 행사에 관한 문의는 603.706.0419, 978.407.7554로 할 수 있다.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1천만 관객 돌파 '파묘'...보스톤 2개 극장 상영 중

AMC 보스톤커먼 19과 AMC 코즈웨이 13 두곳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들어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으로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보스톤에서도 상영 중이다.

미국 지역 배급사인 웰고유에스에이(Well Go USA)는 보스톤 다운타운에 위치한 AMC Boston Common 19과 노스엔드에서 위치한 AMC Causeway 13에서 현재 상영 중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22일 개봉했으며 이번주 1주 더 연장해 상영한다.

한편 한국의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의 누적 관객 수는 24일 오전 1천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32일째에 달성한 기록이다. 지난달 22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파묘'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천만 고지까지 내달렸다.

같은 달 28일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듀: 파트 2'도 '파묘'의 흥행세를 꺾지 못했다.

국내 극장가에서 천만 영화의 탄생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

이 누적 관객 수 1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석 달 만이다. '파묘'는 역대 개봉작 가운데 32번째 천만 영화가 됐다.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23번째다. 코로나19 이후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 2'(2022), '아바타: 물의 길'(2022), '범죄도시 3'(2023), '서울의 봄'(2023)에 이어 5번째 천만 영화다.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거액을 받고 부자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렸다.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오컬트 영화가 1천만명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배우 최민식에게 '파묘'는 '명량'(2014)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다. 유해진은 '왕의 남자'(2005), '베테랑'(2015), '택시운전사'(2017)에 이어 네 번째다.

김고은과 이도현에게 첫 번째 천만 영화다. 이도현은 스크린 데뷔작으로 천만 배우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파묘'는 비수기로 통하는 2월에 개봉했다는 점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역대 천만 영화 중 2월 개봉작은 '파묘'를 빼면 '태극기 휘날리며'(2004) 한 편뿐이다.

비수기인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에 이어 비수기 개봉작이 다시 기록을 내며 극장가의 흥행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묘'의 최종 관객 수가 어디까지 갈지도 관심사다. '서울의 봄'은 1천만명을 돌파한 뒤에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천300만명을 넘어 역대 9위에 올랐다.

'파묘'의 흥행으로 연초부터 극장가에 훈풍이 불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음 달 24일에는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4월 6일 제7회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오는 4월 6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더블린 소재 모나티크 마운틴(3156 ft)으로 정기 산행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왕복 6.4마일로 난이도는 5단계 정도 정도로 3.0이다. 산행시간은 5-6시간 정도다.

준비물은 배낭과 아이젠(Crampons), 스패츠, 배낭, 스틱,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아이젠(마이크로스와 이크 또는 크랩폰)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산악회측은 "정상에서는 바람이 세고 기온은 변화가 있으니 장갑과 모자 따뜻한 자켓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산행을 취소해달라" 고 말했다.

산행 당일 집결은 뉴햄프셔 파크앤라이드(Park&Ride, Exit 2 of RT193)의 보스톤익스프레스버스터미널에서 오전 7시까지다. 회비 20불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4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집값 치솟자 집사서 되파는 플리퍼 급증

소규모 투자자들 플립으로 기회창출 재정상황 악화될 내년에 플립이 더 많아질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모기지 지를 갖지 못해 압류당할 위기에 있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해 개축 후 되파는 '플립(Flip)'이 유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 플립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부동산 업자이자 '플립' 투자자인 제인리 샌도벌을 소개했다. 은행이 월 상환금이 밀린 집주인에게 미상환 통보를 하면 포클로져(foreclosure) 시계는 돌기 시작한다. 대출 은행은 이집을 압류해 되파는 날짜를 정한다. 그러나 포클로져를 완결짓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때 플립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입한다. 샌도벌은 이런 정보를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찾는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일반 공개기록인 미상환 통보(default notice) 정보를 끌어모은 것이다. 일주일에 약 2일을 투자해 이 같은 집의 문을 두드리고 답이 없으면 "은행이 집을 압류하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라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적고 사진과 연락처가 담긴 서한을 두고 온다. 보통 방문하는 지역은 중저소득 층이 거주하는 LA 지역이며 일부는 변호사와 중개인이 있지만 일부는 이조차 없다. 약 100여 집을 방문하면 10여명의 집주인과 일하게 된다. 샌도벌처럼 플립을 하는 사람이 늘어 방문하는 집에서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샌도벌씨는 하루에 120마일 정도를 움직이며 모기지가 밀린 집주인들을 찾아 다니며 집 구매의사를 타

진한다. 지난해 샌도벌씨는 플립을 통해 \$255,000을 벌었으며 부동산 중개인으로 \$280,000의 소득을 올렸다. 그는 초기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현금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개인 대출 또는 돈을 대는 파트너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집값으로 \$425,000에서 \$650,000을 지불한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40%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많은 에퀴티(시장가-모기지 부채)를 쌓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모기지 상환금 납부를 힘들어 하거나 집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상당한 에퀴티를 보유하게 됐다. 경제지표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은 고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에서도 불구하고 견조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 집을 압류하는 포클로져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모기지 대출 은행들은 포클로져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모기지 미상환 사례가 1년전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의 압류를 막기 위해 401(k)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클로져 위기에 처한 매물이 올라가는 옥션닷컴(Auction.com)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5,400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상환금이 상당부분 밀려있었다고 밝혔다. 약 절반의 판매된 집들은 포클로져 바로 전단계였으며 이들은 때로 자신의 주택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을 넘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소규모 투자자들은 향후 1년 후에는 이 같은 '플립'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시가 확실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늘 절박한 집소유주들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돈이 급한 집 소유주를 사기를 치거나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로우볼(lowball) 오퍼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토록 서명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법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은 투자자들을 대신에 이 같은 어려움에 빠진 집 주인들에게 접근하는 '홀세일러' 라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많은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

혔다.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집을 파는 것은 좀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구매자들을 만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최근 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돈을 모두 고갈시킬 수도 있다. WSJ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인 샌도벌씨는 집을 지키길 원하는 집주인들에게는 대출 은행과 어떻게 월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개인파산(챕터 13)을 통해 월 상환금 금액을 다시 정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또는 판매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점이다.



유기반려동물센터 만원 '제발 입양해달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애완 또는 반려동물을 찾고 있는 가정들이라면 유기 반려동물센터를 거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매사추세츠 동물학대방지협회 동북부센터는 최근들어 "너무 많은 유기견들이 쉼터에 들어온다" 며 입양할 가족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을 원하는 가족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입양할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볼 수 있다. 방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 없이 매일 방문할 수 있다. MSPCA는 "정말입니다, 제발 입양해 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 단체는 MSPCA-Angell's 기빙 목요일을 위한 기

금모금에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MSPCA-Angell을 위한 노력에 가족, 친지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집이 없거나, 아픈, 부상당한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MSPCA-Angell은 불과 몇 년 만에 많은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10만 마리째에 달하는 애완견 사료를 가난한 가정에게 전달했으며, 약 1만여 마리의 집없는 애완동물, 학대 당하는 동물들을 구출해 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1만여 마리의 애완 동물에 지원했다. 또한 미국 다른 도시로부터 4천400여 동물을 받아들였다. <https://www.mspca.org/>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메인과 뉴햄프셔 20여만 가구 3월 폭설로 단전

20여만 가구 단전 아직도 상당수 가구 단전사태 겪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과 뉴햄프셔의 약 20만 가구 주민들이 지난 23일 폭설로 인한 단전 사태를 겪으며 아직도 추위와 싸우고 있다. 센트럴메인과워(CMP)는 26일 밤까지 모든 단전 피해 가구의 전력을 복구하겠다는 목표로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메인 주의 한 주민은 자가 발전기에 의존해 화로, 냉장고 그리고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으나, 만약 수요일까지 단전 상태가 지속된다면 발전기의 연료인 프로판 가스가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날씨도 여전히 차갑다. 메인의 날씨는 25일 여전히 화씨 30도와 20도를 오가고 있으며, 기상 예보에 따르면 밤에는 화씨 20도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화씨 10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낮 최고 온도는 화씨 30도대 후반이며 밤에는 화씨 30도대 초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남부 뉴햄프셔는 최고 화씨 40도까지 올라가겠지만 중북부는 화씨 30도대 중반이다. 25일 밤에는 화씨 20도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에는 날씨가 다소 풀려 최고 화씨 46도에서 최저 화씨 38도로 비교적 온난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폭설의 최대 재파는 메인의 브라이언프 폰드 인근으로 2피트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다. 해안가에서 30마일 이내에 있는 마을들은 얼음비와 진눈개비가 덮였으며 얼음에 덮혀 쓰러진 나무들이 전선을 끌어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CMP는 20만 2천 가구가 단전 사태를 겪었으며, 25일 들어 13만 5천 가구의 전기가 복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CMP 소속 150명의 복구대원들과 뉴잉글랜드 전역과 캐나다 등에서 온 900여 명의 복구대원들이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복구대원들이 지원을 위해 속속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CMP에 따르면 복구대원들은 우선 전송 시스템과 하부 스테이션에 전기를 복구한 뒤 학교, 카운티, 지역 기관들 순으로 전기를 복구하고 있다. CMP는 주재난대책본부에서 정부 관계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775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25일 오후까지 컴버랜드 카운티의 3만 7천 가구, 요크의 1만 4천 800가구가 여전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뉴햄프셔에서는 콩코드, 킨, 베드포드, 후셋, 로체스터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에버소스에 따르면 25일 아침 7시 30분까지 10만 3천 674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었다. 2만 1천여 가구의 전기도 25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버소스는 26일에는 복잡하고 영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약 81개의 전신주가 쓰러졌으며, 182곳의 도로가 쓰러진 나무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뉴햄프셔에서는 핼컴 노치가 29.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이스트 샌드위치와 알바니가 26인치의 적설량을 보였다



메인 재난대책본부는 단전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12곳의 난방 쉼터를 개설했다.

요크 카운티: North Lebanon Baptist Church, 259 Bakers Grant Rd.; Old Orchard Beach Rec Center, 140 Saco Ave.; West Kennebunk Fire Station, 80 Thompson Rd. 새저다후 카운티: Bath YMCA, 303 Centre St.; and Georgetown Community Center, 19 Old School Rd.

핼콕 카운티 Health Acadia, 24 Church St. 컴버랜드 카운티: Brunswick Recreation Center, 220 Neptune Rd.; Chebogue Island Hall Community Center, 247 S. Road; Mason-Motz Activity Center, 190 Middle Road; Falmouth Town Hall, 271 Falmouth Rd.; Freeport Community Center, 54 Depot St. hsb@bostonkorea.com

Global Chip War and National Sovereignty
Ms. Young-Sun Park
 Emr. Minister of SME and Startups, South Korea
 17:00, March 28 (Thu), 2024
 Belfer L. 01, Weil Town Hall, Harvard Kennedy School

Co-sponsored by HKS Korea Caucus &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at Harvard University

반도체 주권국가

RSVP QR code

박영선 전 중소기업 장관 <반도체와 주권> 하버드 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3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빌딩 B-L01 타운 웨일 홀에서 저서인 “반도체 주권국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한국의 국가 주권 문제를 배경으로 반도체 개발의 다소 아이러니한 역사를 탐구한다. 반도체 산업은 기계 산업에서 전자 산업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 즉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에서 촉매를 찾았다.

곧 영어로 출판될 예정인 “반

도체 주권국가”를 바탕으로 박 장관은 무기화된 반도체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한다. 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진다.

박 장관의 신간 반도체와 주권은 “The Global Chip War and the National Sovereignty,”란 제목의 영문본도 출판될 예정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현재 하버드 케네디스쿨 애쉬센터 수석연구펠로우로 재직 중이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예약을 할 수 있다.

DATE: March 28, 2024 Thursday 5:00-6:15 PM
 VENUE: B-L01 Town Weil Hall, Belfer Building, Harvard Kennedy School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든 분들, 특히 눈을 떠저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한참을 이불 안에서 몽그적거리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굳이 매트를 찾아 깔지 않아도 되고, 침대 위에서 편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Yogasonghayeon)에서 최근 올린 “10min Morning Stretches in Bed” 영상을 찾아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격일로 짧은 SHORT영상과 10분 정도 분량의 운동과 스트레칭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아직 안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틈틈이 집에서 운동과 스트레칭 병행하시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질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yogasong_hayeon)에는 재밌는 댄스와 근력운동 릴스도 업로드 하고 있으니 꼭 팔로우해주시길 바랍니다.



1. Seated Spinal Rotation : 허리 등 통증 완화, 복부 강화

1단계 한다리를 바깥쪽으로 보내고 다른 발은 반대 허벅지에 가까이 대고 앉아줍니다.
2단계 한손은 다리위에 올려놓고 반대손은 머리 옆에 둔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를 비틀어 트위스트 합니다.



3단계 들숨에 올라왔다가 날숨에 다시 복부를 수축하며 몸을 비틀어줍니다.

4단계 5회 이상 반복하고 반대 방향을 준비합니다.

5단계 두 손을 발목에 올려두고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잠시 휴딩하면서 허벅지 뒷면과 안쪽을 늘려줍니다.

TIP!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천천히 트위스트해 허벅지, 허리와 등 뒤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 Figure 4 Stretch : 허벅지 바깥쪽, 둔근 스트레칭, 골반과 허리통증 완화

1단계 누운 상태에서 한다리를 접어 발목을 반대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2단계 올려놓은 다리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잠시 머물러주세요

3단계 좀더 깊은 스트레칭을 위해 손으로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깁니다.

4단계 목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개를 들어 가슴을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TIP! 평소 비둘기 자세(pigeon pose)가 힘들었던 분들은 이 자세를 자주 해주면서 골반과 힙 주변을 풀어주세요. 골반 통증은 물론 허리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칭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성 앙투안 드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온난화 직격탄, 매출 부진에... '명품' 파카 캐나다구스 17% 감원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의 명품 파카 브랜드인 캐나다구스가 지난 겨울 매출 부진 대응책으로 전 세계 직원의 17%를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구스의 데이비 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전문가용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에 올린 게시문을 통해 경영 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감원 계획을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리스 CEO는 "이런 결정이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 경영의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감원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현재 캐나다구스 직원은 총 4천700명으로, 토론토 본사에는 915명이 고용돼 있다.

캐나다구스는 예년과 다른 온난한 겨울 날씨로 소비자의 구매 시점이 지연되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부진을 겪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위 관계자는 "첫 추위가 시즌 매출에 영향을 준다"며 "소비자들이 겨울 상품 구매를 미룰수록 본격 매출이 늦어지기 마련인데, 이번 겨울이 바로 그랬다"고 말했다.

캐나다구스는 캐리 베이커 브랜드·영업 부문 사장이 디자인 부문까지 맡고 베스 클라이머 재무·전략 부문 사장이 최고운영관리자(COO)를 겸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테슬라 판매 둔화에...머스크 "美서 자율주행기능 한달 무료 이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고객들에게 자율주행 장치인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번 주 FSD가 지원되는 모든 미국 내 자동차는 한 달간 무료 시험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썼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의 테슬라 주행보조장치다.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가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차선도 바꾸고 신호등 감지하며 설정한 목적지를 찾아간다.

그러나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 탑재된 것과 달리 FSD는 1만2천 달러에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월 199달러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

머스크는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테슬라 신규 구매자 등에게 FSD를 시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의 아무도 FSD가 실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이런 FSD 무료 시험 운행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테슬라의 경우 작년 하반기 가격을 5% 낮췄는데도 판매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3%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성장 속도가 더뎠다.

이에 이번 무료 시험 운행은 전기차 수요 감소를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풀어된다.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분석가 샘 아부엘사미드는 "차량 가격 인하와 FSD 도입이 저조하면서 테슬라의 마진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FSD 시연을 강조한 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2.92% 오른 177.67달러에 마감했다. 주가는 한때 6% 이상 올랐다가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taejong75@yna.co.kr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볼티모어 다리 '조난신호'→즉각 교통통제 대형참사 막았다"

"경찰관들이 90초 안에 양방향 통행 막아"...주지사 "영웅들" "빠른 속도로 충돌...다리 위 작업하던 인부들은 대피 못해" 작업하다 사망 인부 모두는 히스패닉 이민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선박 충돌로 대규모 교량이 붕괴하기 직전 선박이 보낸 조난 신호에 따라 교량 교통이 즉시 통제되고 대피 조치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2.6km 길이의 교량과 충돌하면서 다리 대부분이 무너졌다.

대형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실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실종자 규모가 최대 20명이 될 것이라던 예측이 나왔으나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데다 사고 선박이 충돌 전 조난 신호를 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에 조난 신호를 보냈고 이에 당국자들이 교량 양쪽에서 통행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할 수 있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전했다.

또 AP 통신은 당시 경찰관들이 조난 신호를 접하고 약 90초 안에 교량 양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차량을 몰고 교량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에게 경고할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조난 신호가 당국자들이 교량의 일부 통행을 막을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이에 따라 붕괴 당시 교량을 건너는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교통 당국자들도 교통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미국 ABC 뉴스가 국토안보부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보도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조난 신호를 듣자마자 교량을 막고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물에 빠진 운전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은 볼티모어항을 출발한 뒤 추진력과 동력을 상실했고 표류해 교량과 충돌했다고 밴홀런 의원은 전했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8명의 인부가 있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됐으나 6명은 실종됐다.

현지 당국은 몹시 차가운 물 온도와 실종된 시간을 고려할 때 실종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27일 오전까지 수색을 일시 중단한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실종자들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출신이라고 동료 인부는 말했다.

사고 선박이 빠른 속도로 다리와 충돌해 조난 신호를 받은 뒤 차량 통행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무어 주지사는 선박이 다리를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면서 당국이 차량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막을 정도의 시간만 있었다고 말했다.

교량 충돌 직전 조난 신호에 경찰관 한명이 다리 중간 지점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대피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수초 뒤에 무전으로 "전체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다리 전체가 붕괴했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인부들이 사용하는 작업용 무전에

서 누군가가 '선박이 통제를 상실해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인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 대피 명령은 없었다. 30초 뒤에 다리는 붕괴했고 무전은 조용해졌다.

kje@yna.co.kr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myo.co.kr

좋은사람들
www.junm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월러 연준 이사 "금리인하 서둘지 않아"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도

(서울=연합뉴스)임상수 기자= 연준의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미리 준비된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련 지표가 '실망스럽다'면서 금리인하에 앞서 '적어도 몇달간 보다 나은 지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된 진전은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설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4차례나 한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 2%로 향하는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현재의 제한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이뤄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진전이 구체화될 때까지 인하 조치를 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견고한 미국 경제와 탄탄한 노동시장으로 인

해 통화완화 정책 결정을 늦추는 것에 따른 위험이 지나치게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6월에 첫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준도 이번 달 발표된 새 경제전망에서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내부적으로는 19명 위원 가운데 9명은 두차례 이하 인하를 예상했다. 심지어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한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준은 올해 국내 총생산 추정치도 지난해 12월 1.4%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경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러 이사는 연설 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준이 절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 거품' 경고음... "상승폭 제한·버핏 지표 빨간불"

(서울=연합뉴스)임상수 기자= 미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서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인도와 일본 시장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버핏 지표'에서도 거품 우려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만큼 향후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CNN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GSAM)은 미국 거시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GSAM의 제임스 애슐리 국제시장 전략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만들어내면서 경기침체를 피한다

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이지만 경기침체가 온다면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통화정책은 통상 2년의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지난해가 아닌 올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의 압력으로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겠지만 이는 이미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최근 강세가 막바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슐리 책임자는 "현재 미국 주식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는 상승 여력이 제한돼 있다"면서 "다른 시장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GSAM은 인도가 가까운 미래에 두 자릿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할 수 있는 등 전략적인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상승 랠리에도 여전히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곧 도착없음' 텅 빈 정류장...12년 만의 버스 파업에 지하철은 만원

비까지 내려 출근길 불편 상당...일부는 파업 모르고 출근 나섰다 당혹 시민들, 택시·마을버스 타며 불편 호소..."기사 처우개선 필요" 의견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28일 출근길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른 아침부터 비까지 내리면서 불편이 가중됐다.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한 터라 파업 소식을 모르고 출근 길에 나섰다 당황한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서울 지역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는 전광판에 '곧 도착없음'이라는 문구가 떴다. 문구 아래로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번호와 '출발대기'라는 안내가 줄줄이 이어졌다.

오전 8시께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황모(56)씨는 버스 파업으로 회사에 지각할까 봐 걱정스러워했다.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강서구 화곡동으로 매일 출근한다는 황씨는 "지하철을 타면 세 번은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는데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에게 버스 파업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당황하는 시민도 여럿 보였다.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으로 출근하는 조민상(37)씨는 "뉴스를 잘 안 봐 버스가 파업하는지 몰랐다"며 "정류장 전광판에 운행 예정 버스가 없어서 어리둥절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아예 출근을 서둘렀다는 시민들

도 보였다. 오전 6시 30분께 종로구 세검정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성우(38)씨는 "혹시 택시도 없으면 경복궁역까지 거의 1시간 걸어야 할지도 몰라서 평소보다 40분 일찍 나왔다"며 "퇴근할 때는 버스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버스를 타지 못한 시민들은 급하게 택시를 잡거나 지하철역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4개 지하철 호선이 지나가는 왕십리역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역사 내에는 '이용객이 증가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부 혼잡이 예상돼 안전에 유의하며 열차를 타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반복해 흘러나왔다.

면접을 위해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택시를 탄 A(26)씨는 "평소 1~2분 내로 잡히던 택시가 오늘은 10분이 넘어가도 잡히지 않아 지각했다"며 "버스 파업으로 담당자도, 다른 응시자도 여럿 늦어 그나마 다행" 하소연했다.

자치구에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배차간격과 노선, 대수를 알리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구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오전 10시 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 탄 주민 송모(74)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돌아가려는데 버스가 없었다"며 "셔틀버스가 방금지



총파업 시작에 비어 있는 버스 정류장.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나 가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출발한 다더라"고 말했다.

한양대 과 점퍼를 입은 한 학생은 이 셔틀버스를 탔다가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급히 운행 중인 마을버스로 옮겨타기도 했다.

셔틀버스 기사 김경모(74)씨는 "좁은 길을 큰버스로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번거롭지 않겠느냐"면서도 "파업하는 사람들이 괜히 하겠냐"라며 파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버스의 빈자리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평소보다 눈에 띄었다. 이태원동에 사는 정모(32)씨는 "버스 파업으로 지하철역까지 갈 방법이 없어져 오늘은 마을버스를 탔다"며 "마을버스마저 파업할까 봐 초

조하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줄지었다.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버스 파업으로 결국 지각했다. 택시도 안 잡혀서 결국 걸어서 출근했다"고 적었다.

다른 시민도 비싼 택시를 부르는 바람에 요금이 평소의 배가 나왔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반면 버스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여럿 보였다.

한 이용자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최근 5년간 버스 기사 연평균 임금인상이 2.98%에 그친다고 한다"며 "버스 노동자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도 "버스 기사들이 근무 강도에 비해 높지 않은 임금에 운행 중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는 등 중노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당장 며칠은 불편하겠지만 참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천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천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버스노조의 파업은 2012년 20분간의 부분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박형빈 김정진 이율립 최원정 기자)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29th - APR. 4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EASTER BRINGS JOY, PEACE, LOVE, AND SAVINGS!

Happy Easter from our family to yours! 풍성하고 특별한 부활절 만찬을 H 마트에서 준비하세요!

BE EGG-TRAORDINARY WITH TORNADO OMURICE!

Whip up a whirlwind of flavors with this unbelievably easy, 15-minute tornado omurice recipe! 초보자도 손쉽게 만들수 있는 회오리 오므라이스의 초간단 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2.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플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9.9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8.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3.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Head-on Shrimp 통통배 머리새우 PREMIUM/30-40'S LB \$3.99	Frozen Pollock Fillet 동태전감 LB \$2.99
SANFORD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홍합 2 LB/PKG \$11.99	Frozen Silver Pomfret 은병어 300-400'S/LB \$8.99
TONGTONGBAY Dried Das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PRODUCT OF KOREA 2 LB/PKG \$17.99	Live Turbot 살아있는 찰갱어 PRODUCT OF KOREA/LB \$19.98

SMART CARD MEMBER ONLY

YECHON Korean Rice 예천 일품쌀 22 LB \$24.99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EA/BOX \$9.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11.99	CHUNGJUNGONE Sweet Potato Glass Noodles 청정원 민속 당면 1.1 LB \$5.99

PULMUONE Organic White Rice 플무원 유기농 쌀 15 LB \$49.99	OTTOG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투기 진라면 소컵 MILD/SPICY 2.29 OZ X 6 EA/BOX \$7.99	CHUNG JUNGONE O'Food Original Seasoned Soybean Paste Mild Ssamjang 청정원 오후드 순창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2.2 LB \$5.99	ESENCIA Grape 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3.8 FL OZ \$6.99	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HOT /MEDIUM HOT /EXTRA HOT 7.8 OZ \$2.99
SAMLIP Frozen Udon Noodles 삼립 냉동 우동면 2.76 LB \$2.99	SAMJIN Skewered Fish Cake 삼진어묵 꼬치어묵 2.2 LB \$7.99	YECHON Red Pepper Powder 예천청결 태양초 고춧가루 PRODUCT OF KOREA 2.2 LB \$26.99	HAIO Natural Sea Salt 해오름 명품 굵은 소금 10 LB \$12.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5.99 OZ \$3.99	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흥그리 강냉이 5.99 OZ 2\$5	HELLO HOME Stainless Mini Butane Gas Stove 헬로홈 미니 스텐 가스렌지 9.6 X 8 X 3.9 IN -\$27.99 \$19.99	SURLASANG Ga On IH Two Handle Pot 수라상 가온 IH 파스타 냄비 PINK/GREEN -\$44.99 \$31.99	LION A! Kekute Hand Soap Refill LION 아이! 깨끗해 손비누 거품형 리필 LEMON/POWDER -\$6.99 \$2.99

UNTIL APR. 4, 2024

JINGA
경단

ASSORTED GYEONGDAN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5.99~~
\$4.99
12 OZ/PKG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5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parkji@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36.3412 sooyoung@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영 617.915.1162 hy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규 617.543.0728 tjyung@bostonpremierrealty.com	 박희 404.641.9192 wsp@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ang 248.449.0117 jj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wb@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시작...가락시장 · 이태원 · 소방서로

한동훈 '이 · 조 심판 내세워 지지 호소'... 이재명 '정권심판론' 부각 출근길 인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김치연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 서울에서 일제히 유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만 '0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0시 정각에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배추, 과일 도매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 이 · 조(이재명 · 조국)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더 제고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느냐"고 묻거나 채소, 과일값을 물으며 "물가가 많이 올라 죄송스럽다. 저희가 잘하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가락시장에서 한 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의 박정훈(송과갑) · 배현진(송과을) · 김근식(송과병) 후보가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강북 · 도봉 · 노원구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도 방문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호소하는 오영환 위원장.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박영순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함은경 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8일 용산역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본격적인 유세를 벌인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당 정권심판 · 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인근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 격전지인 서울 중 · 성동갑과 서울 동작갑, 동작을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퇴근길 인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정을 선언했다.

윤영덕 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무능, 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며 지지자 집결을 호소했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맞춰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현화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등은 0시 영등포 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천 위원장은 "소방과 경찰이나 국군장병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쉬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랜 기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수당들도 꼭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에는 남양주와 구리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하고, 오후 영등포역에서 중앙당 발대식을 연다. 이어 영등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신정현 · 주찬미 후보 등은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물가 현황 등을 들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0시에 부산역에 도착해 페이스북에 출정 선언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하루 동안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을 타고 올라가며 릴레이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자당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울산 북구를 찾아 표심몰이에 나섰다.

'SF의 노벨문학상' 받은 소설 드라마로...넷플릭스 '삼체' 인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너희에게 경고한다. 회신하지 마라. 회신하면 우리가 가서 너희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1977년 네이멍구. 정부의 명령으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발달한 외계 문명을 향해 메시지를 발송하던 과학자 예원제(자인 첩분)는 외계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낯선 외계 문명은 "나는 우리 세계의 평화주의자"라며 "내가 너희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은 너희에게 행운"이라고 설명한다. 지구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다가 외계의 호전적인 세력에게 발견되면 화를 입게 될 거라는 경고다.

예원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외계 생명을 향해 이렇게 회신한다. "와라, 우리 문명은 이미 지구력을 잃었다. 이 세계를 점령하도록 내가 돕겠다."

지난 21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미국 드라마 '삼체'(3 Body Problem)의 한 장면이다. 이 작품은 인류가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외계 생명체의 손에 지구가 지배당할 위기에 빠졌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물리학자인 예원제의 아버지는 반혁명적인 과학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문화대혁명 때 목숨을 잃는다. 예원제 역시 별목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지만, 당국은 예원제의 뛰어난 과학지식을 알

아보고 그를 외계 문명에 신호를 보내는 비밀 작전에 투입한다.

아버지의 죽음과 정치적 풍파 속에 인간을 향한 깊은 회의감에 빠진 예원제는 외계 생명체에 지구를 점령해달라고 요청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계생명체들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타고 지구로 당장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 같지만, 외계 문명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400년에 달하는 시간에 걸린다.

외계 문명은 이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외계의 공격에 맞설 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들의 손에 2024년 지구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삼체'는 과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와 400년 후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영어권 TV 시리즈 부문에서 시청 수(Views·시청 시간을 재생 시간으로 나눈 값) 주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에서 10위 이내에 들었고 독일과 체코를 비롯한 15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일간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패트론을 보면 '삼체'는 공개 이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에 올랐다.

이 작품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SF의 노벨문학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을 받은 중국 작가 류츠신의 '삼체'(원제 '지구의 과거') 3부작을 원작으로 삼아 개발한 소재와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갖췄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원작의 후광에만 의지한 것은 아니다. 드라마 '삼체'의 각본은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각색한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대니얼 브랫 와이스가 썼다. 이들은 원작을 효과적으로 각색했다.

2010년 완결된 원작 소설의 이야기는 주로 2000년대 중국이 배경이지만, 드라마 제작진은 2024년 영국의 과학자들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원작의 등장 인물들은

시대와 지역을 반영해 재탄생됐다.

특히 드라마는 시각특수효과(VFX)를 활용해 소설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시각효과를 구현했다.

극중 태양이 3개인 행성에서 사는 외계 문명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이용하는데, 행성이 불타버리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모든 물체가 떠오르는 장면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외계 문명이 주인공에게 경고하기 위해 '우주가 워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마치 불을 끄다 켜는 듯 하늘의 모든 별이 빛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한다.

'삼체'는 중반부 외계 문명의 함대에 침투할 정찰 탐사정을 발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미 시즌2제작을 위한 기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남은 이야기는 후속 시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평점 사이트 IMDB 이용자 2만5천명은 '삼체'에 평균 7.8점(10점 만점)을 줬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77%(100% 만점)를 기록하고 있다.

jaeh@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연합새벽예배

2024년 3월 31일, 오전 6시

장소: 성요한 연합감리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나사렛사랑교회, 내슈아한마음교회, 뉴햄프셔감리교회, 뉴햄프셔한인교회,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제일한인교회, 로드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 라이코스 교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밀알교회, 보스톤감리교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톤 조이풀교회, 보스톤늘푸른교회, 디딤돌교회, 보스톤서부장로교회, 보스톤성결교회, 보스톤한울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보스톤제일교회, 보스톤주님의교회, 보스톤중앙교회, 보스톤필그림교회, 보스톤한인교회, 보스톤한인연합교회,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비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길장로교회, 성요한연합감리교회, 순복음보스톤교회,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연합감리교회, 열방교회, 우스터장로교회,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워십프론티어교회, 은혜진리교회, 임마누엘연합교회, 좋은감리교회, 지구촌방주교회,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권자영생 장로교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2) 놀라운 주식배당금 수익

주식시장이 최근 이자율 하락이라는 기대와 함께 연일 고공행진이다. 너도나도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본인만 뒤쳐진다는 두려움과 함께 요즘 화제가 되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고자 한다.

주식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가격이 상승해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금융 앱을 연결하여 24시간 주식 가격을 살펴본다. 그러나 가격 상승만큼 중요한 것은 주식배당금(Dividend)이다.

2023년 한 해에 주식시장에서 주식배당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무려 \$588.2 billion이다. 2022년은 \$564.6 billion이다. 미국 대기업 3개 기업을 예로 들면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0.7 billion, 애플(AAPL)은 \$14.9 billion, 그리고 엑손모빌(XOM) 역시 \$14.9 billion을 주식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주식 가격만을 고려해서 주식을 자주

사고팔면 이러한 놀라운 주식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다)

1950년부터 S&P 500의 주식배당금은 연간 5.7%씩 증가(Robert Shiller's Historical Data)했다. 이것은 물가 상승 3.5%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이며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꾸준한 생활비를 제공한 희소식이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식 통계에서 최고점과 최고점의 차이를 드러다운(Drawdown)이라고 말한다.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은 38번이나 두 자리 숫자로 하락한 적이 있다. 20% 이상 폭락한 적도 11번이었다. 그렇다면 주식배당금의 투자 위험은 어떠한가? 주식배당금이 두 자리 숫자로 하락한 적은 단 한번뿐이었다. 투자 위험성의 관점에서 주식배당금에 대한 변동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주식배당금을 기대하는 투자자, 특히 은퇴자는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 혹은 애플에 투자?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업 가치, 자금력, 신상품, 운영진, 등 비교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 개인 투자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뜨거운(Hot) 몇 개의 주식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상황으로 변해 있을지도 아무도 모른다. 195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9,000개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존재했지만 그중 약 80% 기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내가 은퇴할 때 투자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몇 개의 기업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이 24% 상승했다. 지난 5년 연평균은 15.36%, 10년간은 11.02%, 그리고 지난 15년은 12.63%였다. 수익률 12.63%란 \$500,000 투

자가 15년 후 \$2.5 million으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배당금을 많이 주는 특정한 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생산한다. 어느 비즈니스나 자금 동원(Cash Flow)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해서 생산하고 직원들 봉급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경제 침체기(Recession)가 온다는 침울한 분위기에서도 대다수(37%)의 기업이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현금 보유가 원만하고 경제 활동이 살아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매년 놀라운 주식배당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업 주식에 꾸준히 투자한 투자자만이 받을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주식 가격 상승과 주식배당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주식시장 역사가 투자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566년(또는 567년)경, 신라의 여검객 유지柳枝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차례 소요를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때마다 진압군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결국 문노의 수제자 비보랑이 낭도들을 이끌고 가서 소탕하였다. 당시 18세인 비보는 유지의 은둔처를 찾아가서 그녀를 따르는 난도亂徒들을 모두 생포하였다(화랑세기에는 유지가 비보랑의 품모에 반해 스스로 항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보는 재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무리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런데 유지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 살기 보다는 비보를 따라가 죽기를 원했다. 비보는 하는 수 없이 유지를 집으로 데려와 첩으로 삼았다. 47) 그들은 아들 유오랑을 낳았는데, 부모를 닮아 품모가 맑고 빼어났다. 물론 격검술의 재능도 물려 받아 가히 겨를자가 없었다. 그 역시 18세에 지명법사智明法師을 따라 진陳나라로 가서 무도를 연마하고 많은 책을 가지고 귀국하여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비보랑이 풍월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582 ~ 585년)에 신라에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고 잠시나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제26대 진평왕은 579년 7월 즉위하였다). 화랑도들은 그 모두가 풍월주 비보랑의 덕이 크다고 그를 칭송하였다. 그를 이어

10세 풍월주 미생랑(미실의 동생)이 재임(585 ~ 588년)할 때는 가뭄이 들어 파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자, 낭도들은 욕심 많은 미생으로 인하여 나라에 흉년이 든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진평왕은 반찬의 수를 줄이고 죄수들을 방면하였다. 그러자 몇년의 가뭄을 지나 비가 내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비보랑이 풍월주로 있던 시기에는 나라의 풍년이 들었지만 화랑도 내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550년에 태어난 미생은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아 낭도들로부터 인망을 받지 못했지만 권력을 잡은 미실의 비호하에 화랑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은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에는 오르지 못하다가 마침내 585년 비보랑을 이어 10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의 나이 36세가 지나가고 있었으니 상당히 늦은 나이에 화랑도의 수장이 되었다. 비보랑을 이어서 차기 풍월주가 될 자질과 소양을 갖춘 대세大世가 있었지만, 그는 비보랑의 종제라는 인척관계를 이유로 풍월주의 자리에서 배제되었다.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미생과의 세력다툼에서 밀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8)

그래서 비보랑은 585년 풍월주의 위치를 물러나면서 미생에게 대세를 부탁하였다. 미생은 취임과 동시에 대세를 전방대화랑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생은 대세가 주색을 탐하고 난폭한 언행을 일삼는다며 그를 해임하고 제문랑諸文郎

에게 그 직책을 주었다. 제문은 미생의 첩의 동생이었다. 대세는 이에 화가나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화랑 구칠(仇漆)과 함께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갔다. 그 후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자 낭도들은 술렁거렸고 상선이 된 비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랑도는 분파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비보는 자신의 수하 낭도들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상선의 위에서 물러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노는 선도仙道의 우두머리는 둘(문노와 비보) 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보가 물러나면 화랑도의 조직이 와해된다면서 만류하였다. 상선들이 개입하여 조율한 조직의 개혁은 제문랑을 전방대화랑에서 해임하고 비보와 덕명공주의 장남 봉부(朋夫)를 그 자리에 기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낭도들 사이에서는 가뭄과 흉년이 미생의 욕심때문이라는 흉흉한 뒷담화가 끊어지지 않았다. 결국 미생은 낭도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고, 588년 풍월주의 위치에 서 물러났다. 차기 11세 풍월주는 미실의 장남 하종이 이어 받았다. 하종은 선정仙政(화랑의 제반업무)을 모두 미실에게 물어서 결정했다. 미생이 풍월주 재임시 낭도들은 크게 5개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미실은 조직의 대의大議를 모으기 위해 상선上仙(전임 풍월주)과 상화上花(전방 및 좌우대화랑)를 화합하여 열선각계仙閣을 만들어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미실은 비보랑이 추천한 많은 화랑들을 뽑았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보리(4세 풍월주 이화랑의 아들, 화랑세기의 편찬자 김대문의 증조), 김서현(김유신의 아버지), 김용춘(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 등이다.

47) 비보랑은 세진(노리부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아들 세호랑(細好郎)과 딸 세미와 세신을 낳았다. 부인 세진은 곧 사망했다. 그리고 다시 덕명공주(진흥왕과 가야국의 월화공주 딸)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들은 5남(봉부, 보부, 석부, 보주, 진주) 3녀(흥주, 녹주, 명주)를 두었다. 비보에게는 서자 유오랑, 유매, 가가, 수동 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유지의 소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오랑은 '신라 제일의 여검객' 유지의 아들이다.

48) 범흥왕에게는 당시 가장 아름다웠다고 기록된 후궁 벽화의 딸 삼엽공주가 있었다. 삼엽공주는 아시공과 결혼하여 아들 미진부(미실과 미생의 아버지이다)와 딸 말보(겨칠부의 부인으로 문노의 부인이 된 윤궁을 낳았다), 실보(범흥왕과 후궁 옥진의 아들인 비대의 부인이다), 그리고 골보(동대의 부인이 되어 대세를 낳았다)를 두었다. 비보는 비대의 아들이고, 대세는 동대의 아들이니 비대와 대세는 서로 이종사촌이고, 미실/미생 남매와는 내외종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H MART**
Since 1982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R. 28TH - APR. 4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KWANGCHEON Green Tea Roasted Seaweed Living Box

광
천
김

녹차김

~~REG. \$14.99~~

도시락 리빙박스

0.17 OZ X 16 EA X 2 PKG/BOX

\$10.99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몸집 키워 돌아온 '피지컬: 100'... 벌써 반응 '후끈'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피지컬: 100' 시즌2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올랐다.

27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피지컬: 100 시즌2- 언더그라운드'(이하 '피지컬: 100 시즌2')는 이달 18~24일 610만 시청 수(Views·시청 시간을 재생 시간으로 나눔)를 기록해 비영어권 TV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해 K-예능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흥행했던 시즌1에 이어 또 한번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지난 19일 공개된 '피지컬: 100 시즌2' 시청 수는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집트 등 총 87개 국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피지컬: 100'은 참가자 1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몸을 가진 사람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해 공개된 시즌1이 한국에 능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총 82개국에서 톱10 순위권에 올랐던 만큼 시즌2는 공개 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시즌은 지하광산을 배경으로 규모를 키웠다.

100명의 인원이 동시에 경쟁하는 무동력 트레드밀 달리기, 덤프 트럭 60대로 실어나른 모래 나르기 등 출연진을 극한으로 몰아세우는 미션들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출연진 면면도 화려하다. 전현직 국가대표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FBI(미국연방수사국) 외 교관부터 종합격투기 선수, 마살야츠(격투술) 트러커, 경찰, 군인, 배우, 아이돌 가수 등 다채로운 직업군을 가진 이들이 맞붙는다.

한국인 최초 UFC 진출자이자 한국인 최다승 보유자인 김동현, 유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레슬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정지현 등 반가운 얼굴들도 출연하며 이목을 끌었다.

'피지컬: 100'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고액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

면서도 나름대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번 시즌에서도 출연진은 서로를 격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감동을 안긴다.

이들은 무동력 트레드밀 위에서 최고 속력을 내며 달리느라 숨이 턱차 헉헉거리는 와중에도 "화이팅!", "조금만 더"를 외치며 서로를 응원하고, 일대일 매칭 경기에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쥔 참가자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가 아닌 비슷한 체급을 가진 참가자를 지목하기도 한다.

레슬링이나 씨름, 이종격투기처럼 특정 운동 종목의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오래달리기, 공뺏기 등 단순한 경기들이 펼쳐진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피지컬 서바이벌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피지컬: 100'은 특유의 스토리텔링으로 힘을 발휘했다"며 "들



여다보면 광산을 배경으로 하는 콘셉트와 단순해 보이는 미션들이 다 나름의 서사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바이벌을 통해 만들어 가는 서사와 프로그램 자체에 심

어진 서사가 맞물리면서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시즌1 때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 시즌도 그 흐름 안에서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31일 - 4월 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꼼꼼히 확인해야

- 운수: 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소띠 | 새록새록 피어나는

-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

범띠 |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차츰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토끼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 운수: 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애정: 모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용띠 | 내실 있게 해야

-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먼저 내실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뱀띠 | 물이 고여 있으면

-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 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을 돌고도는 것이니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1, 3일 길일, 2, 5일 주의.

말띠 |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 운수: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있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애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처지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양띠 | 돈이 들어오게 되는

- 운수: 너무 완벽함을 도모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 애정: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5일 길일, 4, 6일 주의.

원숭이띠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교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만 하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6일 길일, 1, 5일 주의.

닭띠 | 막상 코앞에 닥치면

- 운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저런 이유로 따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3일 길일, 31, 6일 주의.

개띠 | 만족할만한 결과가

-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활출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 금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1, 2일 길일, 1, 3일 주의.

돼지띠 | 신나서 일하게

-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현실은 힘들어도 잘 지나가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도 생깁니다. ● 애정: 더는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6일 길일, 2, 5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손석구 "우리 사회 거울 같은 '땃글부대'... MZ세대 놀랄 것"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스토리인 만큼 관객들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볼 것 같아요."

22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땃글부대' 주연 배우 손석구는 "특히 온라인을 접하는 게 숨쉬듯이 당연한 MZ 세대에 재밌으면서도 무섭게 다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국진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우리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의심을 제기하는 범죄 스릴러다.

손석구는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여론 조작 세력에 의해 궁지에 몰리는 사회부 기자 상진을 연기했다.

손석구는 상진에 대해 "자기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안 감독은 손석구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와 영화 '범죄도시 2'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전부터 그를 상진役に 낙점했다.

손석구는 처음에는 "아, 내가 주인공을 해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면서도 "인지도가 아닌 저의 다른 점을 보고 출연 제안을 한 거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현실 밀착형"의 기자 역할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기자가 액티브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대수량이 꽤 많은데, 이걸 하나



하나 살려야 해 난도가 꽤 높았습니다. 전 액션보다 대화하는 연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신도 찍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는 촬영 전 실제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기자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캐릭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구했다고 한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이자 전직 기자 장강명도 직접 만났다.

상진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전형적인 기자와는 거리가 먼 캐릭터다. 정의감으로 뽕뽕 뭉쳐 거대 권력을 공격하지도, 사육에 빠져 정치권과 결탁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보 기자'라는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보

지만 그럴수록 더 깊숙한 음모에 빠진다.

손석구는 자신 역시 상진처럼 "잘 휘둘리는 성격"이라며 "저랑 비슷한 사람 같아 영화를 볼 때도 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악이 명확한 캐릭터는 확실히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며 "선과 악이 명백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역할도 손석구가 연기하면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영화의 내용상 상진이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타개해볼까 하다가 '만화처럼 연기해보자' 했지요. 관객들이 상진의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나중에는 감독님이 상진이 귀엽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하."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BTS 뷁 '프렌즈' 英 싱글 차트 13위 첫 진입...제니 OST 44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뷁의 솔로곡 '프렌즈'(FRIENDS)가 영국 오픈업 싱글 차트 '톱 100'에 13위로 처음 진입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순위는 뷁의 첫 앨범 타이틀곡 '슬로 댄싱'(Slow Dancing)이 '톱 100'에서 기록한 24위를 웃돌아 자신의 솔로 음원 기준 최고 성적이다.

'프렌즈'는 친구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영어 가사의 고백 송이다. 지난해 12월 입대해 군 복무

중인 뷁는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위한 봄날의 선물로 신곡을 준비했다.

결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더 위켄드·릴리 로즈 템과 협업한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는 같은 차트에 44위로 17주째 진입했다.

'원 오브 더 걸스'는 미국 드라마 '디 아이돌'(The Idol) OST로, 제니는 이 드라마에 직접 출연한 인연이 있다.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베이비 샤크)는 전주보다 9위 하락한 66위로 87주째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 7: 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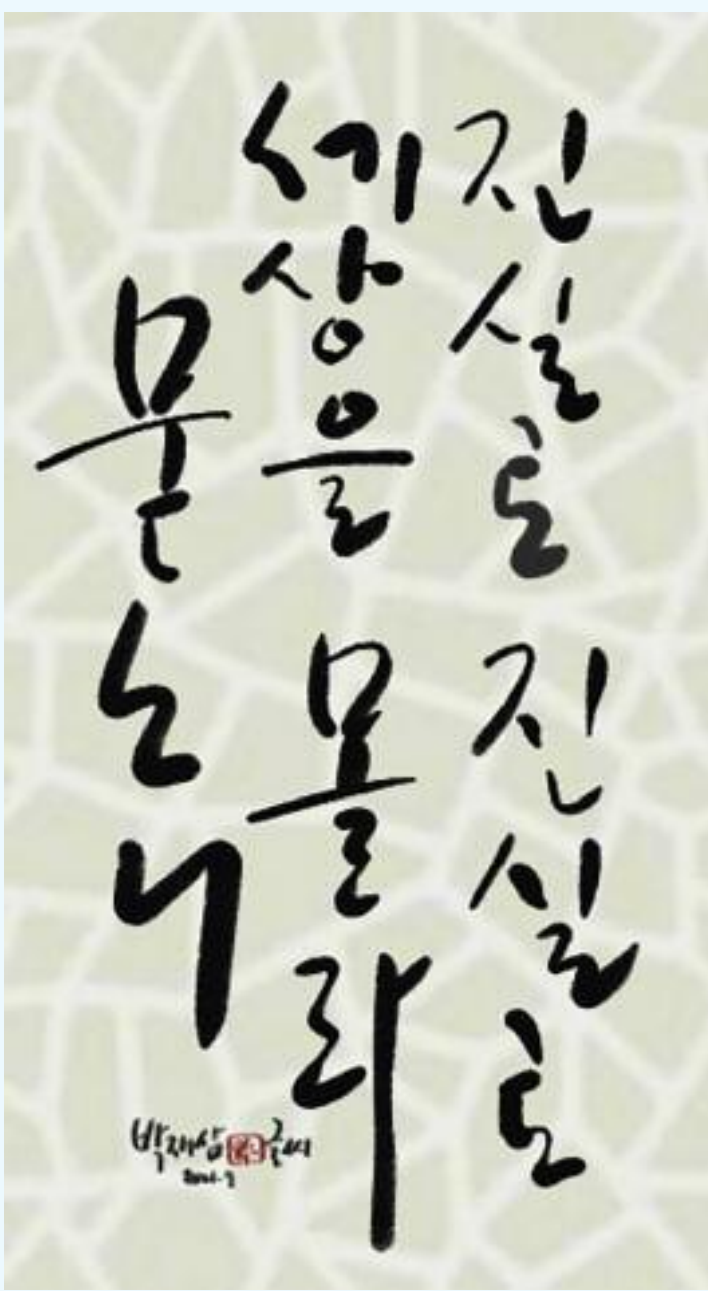
뉴욕에 와 공부를 하며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 놓고 세 아이를 생각하며 앞이 캄캄하던 그때가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니 그래도 참 잘 견뎌왔구나 싶은 마음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또한 세 아이가 엄마를 늘 격려하고 응원해주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엄마를 홀로 뉴욕에 보내 놓고 엄마가 잘 지낼 것이라는 가족 간의 믿음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아빠가 엄마를 늘 믿어주고 살았던 것처럼 딸

이다. “아빠와 엄마는 늘 친구처럼 사이 좋게 지냈어!!” 아빠를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에게 건네 준 세 아이들의 말이였다. 어찌면 이 말이 나를 오늘까지 당당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탱하게 해준 버팀목 같은 말이였는지도 모른다. 여행을 좋아했던 엄마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며 엄마의 후원자로 있던 아빠를 봐 왔을 세 아이들이 혹여 우리 아빠만 고생했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던 마음이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다정했던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늘 친구처럼 잘 살았다는 인정 또는 평가에 마음이 놓였다. 세 아이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나 또한 신학석사과정을 다마치고, 상담학 박사과정을 봄학기 와 가을학기 두 번째 학기를 듣고 세 번째 봄학기를 듣고 있다. 아직도 3여년 정도의 먼 길이지만, 공부가 재미있다. 심리 분야와 정신분석 분야는 내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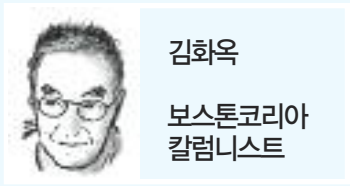
부라서 재미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읽어야 할 책들의 분량이 만만치 않고 과제물들도 적지 않다. 기도하며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중이다. 세상 나이 예순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 않은가. 이렇듯 뉴욕에 와서 신학공부를 하며 사역자의 길에서 더 많은 생각들과 마주한다. 사역자의 길에서 세상을 둘러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다.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몇몇의 성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몇 목회자들 그 외의 몇 전도사나 장로들 그리고 권사들과 집사들의 행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참 가관이 다 싶을 때가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들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는 분들의 올곧지 않은 행실에 실망이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이라면 부부 간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은가.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가정 밖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이 서로 사랑의 말과 행동 그리고 존중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이다. 이처럼 믿음대로 살 때로 사는 불일치의 신앙관이라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한 진실이 빠진 가짜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비바람과 폭풍우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진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부이고 부모 자식이고 가정이지 않겠는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불만 부모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 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 나라' 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일도양단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트럼프 포비아란 말이 눈에 띄었다. 전前 트럼프 미국대통령에 대한 공포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그를 지지하는 층도 상당하다 하니, 호불호는 극명히 갈리는 모양이다. 물과 기름의 경우도 있다. 물과 기름이야 어차피 섞일수도 어울릴 수도 없다. 피차 포빅 (Phobic) 이란 말인데, 물과 기름은 분리 어렵지 않다. 한국에선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각 정당마다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희망자는 많은 모양이다. 공천이라 하던데, 추려내고 골라야 하는데 열을 내고 있단다. 이 역시 분리선택이라 해야 하는데 글귀 하나가 떠올랐다. 주자의 말이다. '베어 내자니 풀이 아닌게 없고 두고 보자니 꽃이 아닌게 없다'

분리하고 심사하는 사람들 고민이 많겠다. 김훈의 글귀를 차용해서 몇자 옮긴다. '버릴 게 없고, 버릴 곳도 마땅치 않은데 버려야 하기에 마음만 산란하다.' 하긴 버릴 게 아니라, 뽑는다 생각하면 어떨까. 그것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추려 내다 해야 하나? 아내가 부탁했다. 깎두기를 담글 테니 무우를 썰어 달라는 거다. '나야 감지덕분 흔쾌히 응락하고 도마를 마주 했다. 아내의 주의사항이 앞섰다. 잘라야 하는 무우의 규격이었는데, 크지 않게 먹기 좋게 잘라야 하는 거란다. 내 성격을 알고 있으니, 대충 대충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었던 거다.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겐 일도양단—刀兩斷이 먼저였다. 단칼에 큰 무우를 두조각으로 쪼갰

다는 말이다. 둘로 잘라 반토막을 내면 다루기에 한결 편하기 때문이었다. 세상 일이라면 다를 것이다. 어찌 모든일을 단칼에 무우 베듯 자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물위에 뜬 기름마냥 건져내고 분리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버릴것과 남길 것을 단번에 구분할 수 있을까. 책도 그러하다. 보관해야 하는 걸 골라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걸 안목이라 하던데 나는 쉬이 결정할 수는 없다.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고나 할까. 내게 책 버리는 일엔 일도양단은 없다는 말이다. 버리자니 아깝고 남기자니 짐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버릴 책 고르기에 포비아가 있다는 말인데, 마음만 산란하다. 진실로 진실로 세상을 몰라 묻노니 (박재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다니엘 4:23)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유방암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유방 갑상선외과 박 요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유방은 수유에 필요한 유선조직과 이를 지지하는 연부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이 기관에 발생하는 암이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중 1위로, 10명 중 2명은 유방암 환자다. 갑상선암과 함께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며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제 암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유방암 발생률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2017년 20만 6308명에서 2021년 26만 9313명으로 30.5% 증가했고 연령군 증가율은 6.9%였다. 인구 10만명당 유방암 환자 진료인원도 2017년 405명에서 2021년 524명으로 29.4% 상승했다.

유방암 증가 이유로 에스트로겐 과다 증상을 꼽을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적 발달과 성장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과다할 경우 부작용 증상이 생길 때 유방암 위험도가 상승하게 된다. 최근 늦은 결혼 시기와 출산율 감소로 수유가 줄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고지방, 고칼로리 섭취로 지방이 늘면서 지방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동반 상승해 유방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가 암 검진 사업 활성화로 유방암 검진을 적극 시행하게 되면서 조기 진단되는 사례가 많아져 발견 자체가 늘어난 것도 유방암 증가 이유라 할 수 있다. 폐경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0년까지는 폐경 전 유방암 비율이 폐경 여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폐경 여성 유방암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2015년에는 53.5%까지 증가했다. 즉 연령별 유방암 발생 빈도와 마찬가지로 폐경 전 유방암 환자 비율은 점차 줄고 폐경 후 환자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유방암을 최초 진단할 때 환자의 질문은 대부분 “제가 몇 기인가요?” 라고 묻게 되는데 사실 상 궁금한 것은 치료 후 생존율일 것이다. 생존율은 유방암 기수

별로 정해진 치료를 잘 받았을 때 생존율 30% 미만인 4기와 비교, 0기는 98%, 1기 96%, 2기 91%에 이른다. 조기 유방암 치료 성과가 좋은 이유는 국가 암 검진으로 많은 여성들이 유방 검진을 받고 조기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표준화된 치료법 적용으로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유방암 선별검사로 증상 없는 환자도 암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자가 검진, 유방촬영술 등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매월 정기 자가 검진을 권장한다. 폐경 여성은 한달에 1회, 폐경 전 여성은 생리 후 4-5일째가 가장 적당하다.

표준검사인 유방촬영술은 유방을 누르며 시행하는 X선 검사로 유방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 사업 일환으로 40-69세 여성은 2년에 한번 유방촬영술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유방초음파는 유방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멍울 등이 만져질 때 추가로 시행한다. 국내 여성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치밀 유방은 유방촬영술로 종양을 찾아내기 힘든 사례가 많아 유방 초음파 검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확도 면에서 효과적이다.

멍울은 유방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으나 유방암은 미세석회화 형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초

음파 보다는 유방촬영술로 정확한 모양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다. 유방 MRI는 유방암 위험군인 브라카 유전자 보유 여부 등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매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유방암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젊은 층 유방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기 유방암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비만 예방 등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 국가 암 검진은 유방 건강의 기본이며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유방암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Voting Place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617.641.2840

투표소: 총영사관 (3.27~4.1 주말포함 08:00~17:00) 및
매사추세츠한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 MA, 3.29~3.31 주말포함 08:00~17:00)